

8/22/17

설교 제목: 율법과 복음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2:1-29

-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 (롬 2: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 (롬 2: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 (롬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 (롬 2: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 (롬 2: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 (롬 2: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 (롬 2: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 (롬 2: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절관주** 고전 9:21
- (롬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 (롬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 (롬 2: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 (롬 2:17)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 (롬 2: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sup>1)</sup>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 (롬 2:19)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 (롬 2:20)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 (롬 2: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절관주** 마 23:3
- (롬 2: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 (롬 2: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 (롬 2: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 (롬 2: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 (롬 2: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절관주** 엡 2:11, 행 10:2
- (롬 2: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절관주** 마 12:41
- (롬 2: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절관주** 롬 9:6, 갈 6:15
-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시골 마을에 빵을 굽는 제빵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빵 공장은 늘 가까운 농장에다 같은 양의 버터를 주문하고 배달시키는데 언제부터인가 버터 양이 좀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친 김에 배달된 버터를 저울에 달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터의 양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농장 주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농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버터의 무게를 재는 데 사용하는 저울이 정확한지 점검해 보았나요?"

농장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버터의 무게를 재는데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1 파운드짜리 빵을 사용합니다. 빵의 무게와 같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1 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우리는 늘 저 업소에서 빵을 사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1 장 17 절에서 32 절까지에 걸쳐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 후 이어 복음은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로 든 제빵 업자 같이 같은 죄인이면서도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하기가 그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잣대로 비판을 퍼붓는 유대인 아니 위선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교인들을 고발하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교 지도자건 교인이건 모두 다 죄인이며 오직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롬 2: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롬 2: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은 거룩한 양 남을 판단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유대인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나라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라고 한 것인데 하라는 회개는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심판 날에 유대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대로 선과 악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롬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롬 2: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롬 2: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롬 2: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롬 2: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만을 보십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만을 보십니다.

그렇지라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 비해 특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비칩니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했을 때 받게 되는 환난과 곤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있어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의무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롬 2: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롬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롬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기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도 율법이 없어 죄를 범했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받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없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라도 본질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나 양심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를 가르치지만 율법대로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롬 2:17)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롬 2: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롬 2:19)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롬 2:20)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롬 2: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롬 2: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롬 2: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롬 2: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도 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교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간음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이 없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율법을 가지지 않고 같은 죄를 범한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그 죄가 더 엄중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 했습니다.

(롬 2: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롬 2: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롬 2: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롬 2: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만 받으면 죄를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만 자랑할 뿐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의 몸의 일부를 자르는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자체로 의와 거룩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합니다.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이란 표면적이란 말과 대조되는 말로 내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표면적인 의식을 바라시지 않고 진실한 마음의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으므로 사람들에게 공포심만 가져다 줍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는 오직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받을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을 받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양심을 가지고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그의 의의 피로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상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